

삼성 'AI 대전환'... 사장단부터 전 직원 대상 AI 교육 진행

생산 등 모든 밸류체인에 AI 접목
전체 사장단 50여명 대상 첫 교육
전 관계사에 'AI 전담조직' 신설도

삼성이 전체 관계사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고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에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삼성은 연구개발(R&D)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까지 모든 밸류체인에 AI를 접목시키고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첫 AI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사별로 AI 전담 조직도 신설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AI 시대를 주도하고 도약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사장단과 임원,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기업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데 혁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은 이달 중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전(全) 관계사 사장단 50여



삼성 관계사 임원들이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AI 집중교육을 받고 있다. /삼성

명에 대한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또 관계사 임원 교육은 오는 8월12일까지 각 차수별로 2박3일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인력개발원 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은 이번 사장단과 임원 교육을 전

사적 AX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경영진들이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사장단·임원 외 삼성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예

정이다. 특히 전 관계사 사장단은 'AX 부트 캠프'에서 공동 'AX 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어떠한 기업도 한 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담은 예정이다. 또 AI 교육기간 동안 사장단은 수동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한 각 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AI 생태계 구축에 이어, 조직 DNA까지 AI를 바탕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관계사는 "AI 대전환은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강력하게 8대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경

영 혁신을 직접 주도해 나가면서, AX를 통한 혁신 컴퍼니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전 관계사에 'AI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AI 전담조직은 각 사 사업의 특성에 맞춘 AX 추진 전략 수립, 데이터 및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전담하며 그룹 전반의 AX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6월 중 제미니, 챗GPT,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R&D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I 서버 붐... 삼성전기·LG이노텍, '영업이익 1조' 기대감

삼성전기 1.5조, LG이노텍 1조 추정
MLCC·FC-BGA 수요 급증 영향
양사 생산라인 풀가동으로 대응
베트남 중심 증설... 생산능력 확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서버 시장 성장에 힘입어 올해 나란히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관련 제품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

망치 기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 5000억원 안팎, LG이노텍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양사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 전망에는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기는 서버용 F

C-BGA와 AI서버용 MLCC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양산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구글 등 빅테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최근에는 일부 고객사 대상으로 FC-BGA 가격 인상에 나선 데다 수요 우위 환경을 바탕으로 고사양 제품 중심의 선별 수주도 가능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같은 해 FC-BGA 사업에 진출한 LG이노텍 역시 2년 만에 글로벌 빅테크에 PFC용 FC-BGA를 공급하는 성과를 내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양사는 생산 라인도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 가깝게 유지 중이다. 삼성전기의 올 1분기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평균 가동률은 86%를 기록했다. LG이노텍 역시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 설비 가동률이 91.8%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AI 서버용 기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능력 확대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FC-BGA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베트남 공장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기는 부산공장

와 베트남 공장에서 FC-BGA를 생산 중이다.

LG이노텍도 다음달부터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 지난 4월 회사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베트남 하이퐁시와 반도체 기판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증설은 베트남 생산법인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착공해 오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부지 규모는 축구장 45개 크기에 해당하는 9만 8000평에 달한다.

증설 공장에는 통신용 반도체 기판(RF-SiP), 플립칩-칩스케일패키지(FC-CSIP),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watv.org



평화롭고 포용적인 지구촌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신 5800건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머니 사랑의 마음'으로 지구촌 가족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긴급구호, 빈곤-기아해소, 교육지원, 안전사회조성 등 4만 7000여 회 봉사를 900만여 세계 시민과 함께 펼쳐오며, 각국에서 5800여 회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미국 4대 정부 대통령 자원봉사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페루 국회훈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